

# 농번기 안정적 양육 환경 만든다

### 장수군, 승예어린이집·꿈나무어린이집,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 공모 선정

장수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번기 돌봄지원사업에 관내 어린이집 2곳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은 주말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에 영유아를 안심하게 맡기고, 주말에 돌봄방을 운영해 농업인들이 자녀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내에서는 장수읍 승예어린이집, 장계면 꿈나무어린이집 총 2곳이 선정됐다. 농업인 자녀뿐만 아니라 맞벌이 자녀, 다문화 가정도 이용할 수 있으며 만 2세 이상,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금년도 운영계획으로는 상반기와 하반기 농번기 중 총 8개월간 걸쳐 아이 돌봄 방 운영 예정으로, 관내 40여 명의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번기 돌봄지



장수읍 승예어린이집



장계면 꿈나무어린이집

원 사업을 통해 장수군의 부모 청년 농업인이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더 나아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안성면 마암마을 게이트볼장이 15일 개관했다.

## 무주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개관

### 지역 내 체육시설 개선·군민 건강증진 기여 기대

무주군 안성면 마암마을 게이트볼장이 15일 개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마암마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지역 내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4억 4천 2백여만 원을 투입해 연면적 497.25㎡ 규모의 시설을 갖췄다. 시설 내에는 경기장에 스코어보드와 음향장비 등을 완비했으며 경기 참여자와 관람객 등을 포함해 1백여 명 수용이 가능하다. 무주군 시설사업소 체육시설팀 조영자 팀장은 "게이트볼장 주변 지역의 특성과 이용층의 연령, 그리고 안전을 고려한 맞춤형 자재와 친환경 공법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며 "마암마을 게이트볼장을 통해 마을과 안성면, 나아가 무주군의 생활 체육을 활성화하고 주민건강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안성면 마암마을 게이트볼장이 15일 개관했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마암마을 게이트볼장은 안성면 공진리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자 게이트볼 동호인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라며 "앞으로 이곳에서 운동하시면서 함께 화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아 마음껏 배우고 성취감을 높이는 기반, 배움의 즐거움을 새기고 전하는 꿈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100세 시대에 걸맞은 건강과 위상이 모두 이곳에서 더욱 공고해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5일 현장에서 개최된 개관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장을 비롯한 마암마을 게이트볼 동호회원 등 주민 1백여 명이 함께 했다. 무주군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야외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해 군민건강 증진을 뒷받침할 방침으로, 올해는 3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해 설천과 무풍 등에 야외 운동기구 추가 설치와 보수 및 개선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안내판을 2백 개소에 설치하는 등 안전한 운동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45세 이상 여성 군민 대상 난소암 선별 검사

무주군이 45세 이상 여성 군민(무주군에 주소를 둔)을 대상으로 난소암(CA125) 선별 검사를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산부인과가 없고 난소암이 국가암검진 대상이 아니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여성 군민의 암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진 희망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예약·접수(비용 1,500원 수납) 후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월~목요일, 오전)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는 2주 내로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하며 이상 소견자에게는 전문가 상담 후 필요시 2차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임신 3개월 이하 임신부나 월경 기간 중인 여성은 CA125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황순배 팀장은 "난소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6.5명으로 낮지만 무증상이라 조기 발견이 어려워 발견 시 3기 이후인 경우가 많다"며 "여성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조기 발견·치료 시 5년 생존율이 89%로 높아지는 만큼 난소암 선별 검사가 대상 연령대 여성 군민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이 45세 이상 여성 군민(무주군에 주소를 둔)을 대상으로 난소암(CA125) 선별 검사를 시작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산부인과가 없고 난소암이 국가암검진 대상이 아니라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여성 군민의 암 조기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진 희망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건강검진실에서 예약·접수(비용 1,500원 수납) 후 임상병리실에서 검사(월~목요일, 오전)를 받으면 된다. 검사 결과는 2주 내로 대상자에게 우편 통보하며 이상 소견자에게는 전문가 상담 후 필요시 2차 전문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임신 3개월 이하 임신부나 월경 기간 중인 여성은 CA125 수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원무팀 황순배 팀장은 "난소암 발병률은 10만 명당 6.5명으로 낮지만 무증상이라 조기 발견이 어려워 발견 시 3기 이후인 경우가 많다"며 "여성 암 중에서 사망률이 가장 높지만 조기 발견·치료 시 5년 생존율이 89%로 높아지는 만큼 난소암 선별 검사가 대상 연령대 여성 군민 다수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숨은 조상 땅 찾기 신청하세요”

### 진안군, 민원서비스 연중 시행

진안군은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현황을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조회할 수 있는 무료 행정 서비스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인 경우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며 2008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제적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관련 서류 제출 시 위임을 통한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k-go 플랫폼)을 통해 편리

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이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제적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인군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2023년)의 경우 총 1,254필지(약 2,089만㎡)의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제공하는 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농가 교육

진안군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진안군 읍내관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농가 모집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은 현재 조성중인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의 오픈 시기에 맞춰 직매장에

출하할 신규농가를 모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근 지역(진안읍·마령면·부귀면)을 대상으로 해 100여 명을 대상으로 6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교육은 로컬푸드 개념의 이해, 기획생산체계 구축, 직매장 납품 주의사항, 상품포장 및 진열 등 생산출하에 필요

한 내용으로 구성된 강연과 영농 및 출하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평소 로컬푸드에 관심이 많았는데, 거리가 멀어 참여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읍내에 직매장이 생긴다니 뒷밭에서 직접 키운 농산물을 직매장에 한번 내보아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농축산유통과장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로컬푸드의 취지에 맞게 군민의 먹거리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이 차질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직매장에 다양한 품목들이 사계절 꾸준히 유통되려면 신규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 진안로컬푸드 직매장'은 올해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진안군홍삼한방센터 인근에 건립 중에 있으며, 군은 이에 맞춰 신규농가 모집을 위한 기획생산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지난 14~15일 이틀간 진안군 읍내관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출하농가 모집을 위한 생산자 교육을 실시했다.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 지역 소식통

### 태권도원운영관리-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본부, 협약 체결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이사 서필환)는 14일 오후 태권도원 관리동 회의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조성만)와 '중대재해 예방 및 전기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동협력 및 홍보활동,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력 제공 및 전기 전문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전기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전기안전관리 업무 정착을 위해 상호협력 할 것을 약속했다. 서필환 대표이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와의 업무협약은 세계 태권도의 중심시설인 태권도원의 전기시설안전 관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태권도원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대회·행사 운영 능력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은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인구 저변확대하고 주민들이 더 가까이서 책과 만날 수 있도록 나선다. 연중 운영 예정인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은 2월 중에는 관내 5개 작은 도서관(장수, 신서, 번암, 계남, 계북)에서 8개 과정으로 주민들과 만난다. 이번 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획돼 특히 '현책, 예술이 되다', '도서관으로 놀러오려나' 등 강의 내용으로 유아·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책을 매개체로 남녀노소 흥미롭게 접할 수 있다. 2월 중 운영 프로그램은 오는 22일까지 군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재료비 별도)이다. 강민채 문화관광과장은 "책을 매개체로 소통의 창구를 만들고, 책과 도서관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으며, 주민분들께서 적극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